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 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개역, 야고보서 1:1~11]

제가 어릴 때 듣기로 믿음의 거장인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니까 믿음을 강조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칭송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속해 있는 야고보서를 어떻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을까? 어린 제 소견에도 이해가 잘 안되었습시다. 알고 보았더니 그게 상당한 오해였습니다.

우리는 지푸라기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 아무 쓸모도 없는 책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아주 큰 오해더라는 겁니다. 누가 어떤 의도에서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생각하거나 듣지 않으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고등학생 시절에 그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신학교 가서야 알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동안 오해를 크게 하였느냐 말입니다.

루터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기 예수를 낳은 말구유에 그냥 눕히면 딱딱하니까 그 사이에 지푸라기를 넣는 겁니다. 그 지푸라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 지푸라기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와 비교했을 때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지푸라기라고 했더라구요. 이런 문맥을 전해주시 않고 단편적인 말만 전해준 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쓸데없는 서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꼭 필요한데 중요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를 비교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도 그 위대한 루터 선생님께서 오해를 좀 했더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석을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는 말을 루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도 오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믿고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얻은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 해도 그건 이미 잘 하고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닦쳐오는 시련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들을 잘 이겨내라고 권면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숙해지느냐는 것이 야고보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너희는 이렇게 행하여야 한다' 이걸 강조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예수를 잘 알지 못하거나 처음 믿은 사람들 혹은 믿었지만 그들을 다시 격려하기에 유용한 글인 반면에 야고보서는 '이미 믿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라고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믿음을 받아들인지 얼마 안된 분이라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 안에서 성장해 왔다면 야고보서가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저도 갈라

디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같으면 갈라디아서보다는 야고보서가 더 요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번갈아 갈라디아서와 비교해 나갈까 합니다.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에 차이가 난 것 뿐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나 구원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시련을 겪었을 때 인내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잘 이겨내라고 말을 합니다. 비유컨대, 학교 잘 다니는 학생에게는 학교의 중요성을 말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셈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써서 성도들에게 보낼 때 소원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온전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온전이라는 것은 성숙을 뜻합니다. 완전히 다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의 **‘구비하여’**라는 표현도 같은 뜻입니다. 모든 조건에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해야 된다는 말을 두 번이나 썼고 구비라는 말을 썼으니 세 번이나 썼는데 그 다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도 결국은 완전하다는 말이죠? 야고보가 이 글을 써서 성도들에게 보낸 것은 이미 믿은 여러분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온전해지기 어려운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온전하게 되려는 성도들 앞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고난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만약에 이런 박해나 시험에 굴복하면 너희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이겨내서 온전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익숙해서 그렇지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 치르러 가는 아이들에게 “너 오늘 기분 좋겠다” 그런 분 계세요? “야 시험이네! 너 정말 기뻐해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시험을 참아라, 잘 쳐라, 지지 말고 이겨내라. 이런 말은 어울리는데, 시험을 기뻐해라? 이것은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령 그 말을 듣고 시험 치러 간 아이가 시험지를 받아들고 ‘아 기분 좋다’ 이런 아이 어떻게 돼요? 그런 아이 보셨어요? 야고보가 바라는 것은 시험지를 받아들고 이걸 기뻐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아이가 시험지를 받아들고 웃고 있습니까? 잘 치면 장학금도 내 것, 수석입학도 내 것 이런 아이면 시험지 받아들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보통 공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가 시험지 받아들고 주변아이들 보고 ‘너희들 다 고생들 해봐라. 나는 이번 시험 잘 치면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사준다 했고 학교에서 돈 나올 거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학생이 되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것은 이런 성숙한, 이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첫 번째 갖추어야 할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내를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시험지 들고 기뻐하는 것은 돈이 생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걸 통해서 귀한 선물을 받게 된다. 그 귀한 선물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가 그렇게 소중한 귀한 겁니까?

겉모습은 연세 많이 든 노인 같은데 인내할 줄 모르면 아이입니다. 조금 짜다고 ‘아이 짜라’ 철없는 겁니다. 조금 덩다고 껌다 껌다 하는 것도 철없는 일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에어컨을 켜 테죠? 에어컨 바로 앞에 앉아서 춥다고 덜렁 꺼버려요? 안됩니다! 에어컨 틀어서 앞쪽은 추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추위를 잘 못 견디는 분은 에어컨에서 좀 먼 곳으로 가서 앉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더위도 좀 참고 추위도 좀 참아야 어른이지요. 조금만 더우면 덩다, 조금만 차도 춥다 이러면 아기입니다.

바둑 기사들 중에 이창호의 별명이 '애늬은이'였습니다. 실제로는 아이인데 늬은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실수할 때까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끝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완전히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기다림에 도통한 사람은 강태공입니다. 고기 한 마리 낚겠다고 겨울에 얼음 깨고 쭈그리고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보세요. 그래서 이창호의 별명이 애늬은이라고도 했지만 강태공이라고도 불렀답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우리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분간하려면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인내입니다. 스스로 참고 자제할 줄 알면 어른이고 성질이 나면 나는 대로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그냥 퍼 부어버리는 사람은 어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인물 중에 인내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요? 120년 뒤에 올지도 모르는 홍수를 대비해서 긴긴 세월동안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겠습니까마는 묵묵히 만듭니다. 노아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 나간 듯한 아버지 밑에서 묵묵히 배를 만들었던 아들들도 대단합니다.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 약간 맛이 간 듯한데 집 나가지 않고 함께 거주했던 며느리들도 보통 아닙니다. 요즘 며느리들 같으면 다들 나가버렸을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예요. 그 긴긴 세월동안 얼마만한 인내가 필요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윗요?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긴긴 세월동안 쫓겨 다니면서 사망과 나와 사이의 한걸음 차이라고 말하면서 고통스런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인내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언제 뵈었어? 몇 십 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 긴긴 인내의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도 그러하고 요셉도 그러합니다.

요셉의 인내도 한번 보세요.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갑니다. 무슨 팔자 고칠 것이라고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다가 주인인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걸려서 또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거기 가서도 또 열심히 합니다. 인내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욕의 인내 아시죠? 참고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년 이십년 훈련시키고 견디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하시나 봅니다.

은 집사님이 지난 주에 책을 한권 주셔서 내용을 알지만 성의를 생각해서 다시 봤습니다. 갈대상자! 잘 아실 겁니다. 혹시 그 책 보시면서 웃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대목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땅바닥 두들겨 가면서 한참 웃었어요. 갈대상자를 읽으면서 울었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안 울었으면 마음이 엄청나게 강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책 보면서 웃으신 분 계세요? 김영길 총장이 '하나님 나도 신문 한번 낼까요?' 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대목을 잘 인용하는데 김영길 총장이 그 부분을 참 좋아했대요.

전영창 교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거창고등학교를 일으키신 분이데 우리나라 해외 유학생 1호입니다. 이 분이 미국의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산골에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명예를 바라보고 여기 왔습니까? 돈을 바라보고 여기 왔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칩니까?' 그래서 보따리 싸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눈물 콧물 흘러가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했던 말 중에 '이번에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남아 있는 마지막 재산 팔아서 동아일보에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광고하고 나도 끝낼랍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굴 밖에 나와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너 말할 수 있느냐?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하고 내려왔더니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더라. 그 부분을 김영길 총장님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신문 한번 낼까요?'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가슴이 아프면 '전영창 교장이 신문 한번 내 볼랍니다 할 때 하나님, 겁나서 도와주셨죠? 나도 한번 내 버릴까요?' 했을까요? 아픔이 묻어나

면서 동시에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그 웃음이 코미디 같습니까?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떼를 써야 할 만큼 아픈 일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어른이고 그런 어려움 앞에서 일을 접어버리는 것이 아이입니다. 교회 일도 한번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계속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서 조금 일하더니 일이 있다고 집어치워 버리면 어리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도 그런 행동은 자신이 어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내가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시험이 닦쳐왔을 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인내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다른 점은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으신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면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시험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시련의 구렁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 인내를 키워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박사님이 늦게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내다가 어떤 선교지에 갔습니다. 거기서 요구받은 사항은 하라 하는 대로만 예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그러다가 왔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하던 분이 거기 가서 하라는 일만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하든지 처음에 가서 숨을 못 쉬겠더랍니다. 그렇게 더러운 곳에 가서서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 하는 것만 일주일을 하고 왔답니다. 갔다 와서 이 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해 하는지 모릅니다. 인내를 배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돈 쓰면서 스스로 자기 몸을 던져 넣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더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인내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인내는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인내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인내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흔에 일곱 번이라도 참으라고 하셨죠? 490번! '예수님께서 490번 참으라고 했지? 지금부터 내가 널 썰 테니까 490번까지 참아' 이라고 한 대 두 대 패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걸 마귀의 짓입니다.

아이들은 그럴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그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성이 날 것을 알면서 또 그가 참고 잘 견디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 짓 아닙니까? 내가 이러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썰 테니까 너 참아봐! 예수님이 참으라고 했잖아?' 그거 아니예요? 우스운 일입니다.

형제간에, 부부사이에 혹은 아이들 가르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힘들어 한다 하는 것을 알거든 인내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인내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지만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인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배우라 인내를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 구절이 적잖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할 때 쓰십니까? 학교 점수 더 얻으라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지혜 얻어서 무얼 하시렵니까? 돈을 좀 벌려고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장사하는데 장사머리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본래 의미가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학교 공부 좀 더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을 많이 벌려고 이 구절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야고보가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실망하지 않을까요?

마치 영생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책망하시는데 얼마나 섭섭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저 무리들은 떡 얻어먹으려고 와글와글 모여들고 있던 말입니다. 섭섭하다는 이야기죠.

야고보가 왜 여기서 지혜를 언급을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 공부 잘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볼 때는 좀 섭섭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무엇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했을까요? 야고보가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나는 다른 이런 저런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 있을까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1장에서 언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2절, 3절과 연결시켜 보세요. 시험을 당해서 온전히 인내하고 이겨 나가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바로 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험에 굴복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지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하고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닥쳐오는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게 바로 지혜의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도무지 흔들리지 말라,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9절, 10절에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가 나옵니다. 낮은 형제, 아마 재산이 없는 형제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가난하지만 기죽지 말라!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너희가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지 말라! 가난하지만 당당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가 남한테 거들먹거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이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욕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지혜요 성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게 안 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라, 기본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린 겁니다. 사랑은 하는데 지혜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만날 싸우는데 부부도 사랑 안 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못 살겠다고 집 나가버린 사람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세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해요. 그런데 작은 아픔을 처리하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의 지혜를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야,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서 어떻게 살아? 적당하게 수도 부릴 줄 알고 적당하게 비빌 줄도 알아야지' 소위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얻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이 닥쳐왔을 때 인내하면서 참고 또 지혜롭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급한 전화를 받고 부산에 갔었습니다. 42살인데 암으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이기도 했고 가깝게 지내던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위로하나?' 걱정하면서 갔는데 그 부인이 오히려 찾아간 우리를 위로합니다.

"기도원에 가 있었다는 소식은 그전에 들었는데 살아 있을 때 한번 찾아보지 못한 것이 굉장히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기도원에 병 고치러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부름 받아서 갈 몸인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웃어요. “먼저 가나 늦게 가나 우리 다 같이 가서 만날 겁니다.” 이러한 바람에 위로하러 왔던 분들이 위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그 죽음 앞에 의연하게 서서 오히려 찾아온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것이 성숙한 지혜입니다. 교회 일을 함께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한마디 뱉어 버리고 좀 하다가 그냥 집어 치워 버리는 것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인내도 없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오는 시련을 위해 인내를 배우고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도는 이미 넘어갔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까?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참 후한 대접을 받았습시다.

예수님께 병 고치러 간 사람들은 항상 병도 낫고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시다.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10원짜리 얻으러 갔다가 몇 백만원짜리 수표 하나 얻은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기 원했던 삭개오는 한번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습시다. 그래서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시내산에 불구경 갔던 모세는 가서 불만 구경한 게 아닙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후하게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들이 쓰지 말아야 할 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이들 가르치시면 “알았나?” 하지 마세요. 한마디 설명 해 놓고 알았나? 알아들었나? 알았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물으면 으레껏 아이들은 예라고 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라고 답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묻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공부를 가르쳐 보면 남학생들은 난장판을 치는 것 같아도 듣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겉으로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시험을 쳐 보면 속았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모릅니다. 떠들고 시끄러운 머슴아들보다 얌전하고 정말 잘 듣고 있다 싶은 애들이 실제로는 안 듣고 있어요. 거기다가 “알았냐?” 그러면 “예” 그러죠. 그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자기 아이들에게 비슷하지만 써서 안될 말은 ‘그것도 모르냐?’ 입니다. 자기 집 아이들을 왜 못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조금 하다가 ‘야 이것도 모르냐?’ 이러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른다고 ‘그것도 모르고, 알았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듣고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니 그런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믿음을 전혀 언급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어떠합니까? 6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뭘니까? 믿고 구하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기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낮은 형제가 어떻게 자기의 낮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탕 위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방법도 인내를 소유하는 방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행함으로 성숙해진다고 말합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인내와 지혜라고 말합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인내와 지혜의 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머리 속에 그리고 있는 성도의 참 모습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위에 인내할 줄 알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압니다. 거기에 인내와 지혜까지 소유하게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험지 받아들이 기뻐하는 아이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시험지 받아들이 '이 시험 잘 치면 진짜 떡이 생긴다'고 하며 웃어가면서 답안을 작성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빙긋이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또 무슨 복을 주실라고? 그런 재미를 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